

## 아이디어창출

# 발명의 발상기법

### 創意性を製造하는 金言集

世界的인 文豪, 세익스피어는 말했다.

“만일 생각하는 能力이 간단히 손에 들어온다면 天幕은 宮殿으로 바뀌고, 거지는 帝王으로 바뀌리라”

아무리 새 생각일지라도 그것이 具體的인 모습을 갖추고 어떤 利益을 주지 않는다면 價値있는 생각이라고 할 수 없다.

이런 뜻에서 發明하려는 모든 분에게 골고루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發明과 創意性開發의 技藝가 될 金言集을 다음과 같이 모아 보았다.

이 金言을 살피느냐, 죽이느냐하는 것은 讀者 자신의 솜씨에 달긴다.

- ① 마음에 거슬리던 생각하라.
- ② 觀念을 바꾸어 事物을 보라.
- ③ 百貨店을 걷는 것도 發明의 訓練이 된다.
- ④ 廢物活用도 發明이다. 代用을 생각하라.
- ⑤ 既存의 商品에 살짝 발을 붙여라.
- ⑥ 既存商品을 다른 分野에 利用해 보라.
- ⑦ 既存商品의 다른 用途를 찾아라.
- ⑧ 남의 이야기와 意見을 잘 들

어라.

⑨ 自己滿足은 失敗의 根源, 發明은 달콤한 것만은 아니다.

⑩ 自信을 가져라. 그러나 商品에 홀리지는 말라.

⑪ 想像力은 鍛鍊된다. 聯想을 자주 하라.

⑫ 記錄하라. 잊기전에 늦기전에.

⑬ 喜怒哀樂 모두가 發明의 씨앗이다.

⑭ 不便을 느끼면 곧 改良하라.

⑮ 사랑은 發明을 낳는다(父母와 子女)

⑯ 조그만 것, 簡單한 것을 무시하지 말라.

⑰ 항상 疑問을 가져라. 가까운 것부터!

⑱ 關心을 가져라. 好奇心은 發明에 이어진다.

⑲ 苦痛 不滿은 發明의 씨앗이 된다.

㉑ 情報를 蒐集하라. 많이 많이 그리고 整理하라.

㉒ 들은 마음의 分野보다 專門分野를 가져라. 좁고 깊게 파라.

㉓ 失敗는 누구나 있다. 그러나 되풀이 하진 말라.

㉔ 企業의 商品 傾向이나 姿勢를 살펴라.

㉕ 日常生活의 對話나 놀이 속에서 發明의 暗示를 찾아라.

㉖ 初心發明人은 萬수록 事業에 손을 대지 말라.

㉗ 事業化에 있어선 霧圍氣에 빠지지 말라.

㉘ 發明을 위해 本業을 버리지 말라. 發明은 어디까지나 趣味정도로 하라.

㉙ 돌보지 않거나 斷念하지 말라. 다시 한 걸음, 끈기가 成敗를 左右한다.

㉚ 사람의 意表를 질러 깜짝 놀라 하라.

㉛ 時代의 흐름을 거슬러 가지 말라.

㉜ 생각은 항상 確固한 主觀을 가져라.

㉝ 우선 보고 다시 살피고, 그리고 생각하라.

㉞ 餘暇를 善用하라. 生産的인 餘暇를 가져라.

㉟ 奇想天外의 생각도 좋다. 그러나 實踐不可能한 생각만의 發明에 기대지 말라.

㊱ 知識의 慾心을 가져라. 그리고 꾸준히 創意研究하라.

㊲ 最善의 習慣은 讀書다. 집안에서나 길바에서나 항상 손에 冊을 가져라.

㊳ 最惡의 習慣은 흡煙이다. 담배는 百害無益 健康의 大敵이다.

㊴ 無限한 時間과 空間 속에



강 신 목  
(새생각회 회장)

限한 목숨! 살아있는 동안 보람된 일에 최선을 다 하자.

### 바로 알고(正知)

#### 바로 가르치자(正教)

바람직한 教育은 스스로 해야러 思考創造하는 참사람을 만드는 教育이지 시키는대로 하는 記憶再生만 하는 컴퓨터型 人間을 만드는 教育은 아니다.

사람은 세 가지 種類가 있다.

◎ 오늘날 겨우 보는 사람(肉眼, 小人, 劣等人)

◎ 어제를 뒤돌아 보는 사람(心眼, 普通人, 知識人)

◎ 내일까지 해야러 내다 보는 사람(眼, 英才, 知識人)

21世紀는 情報化社會로서 20世紀後半의 우리는 이미 情報의 洪水속에 살고 있다. 情報社會의 특징은 「빠른 情報를 빨리 蒐集하여, 適切에 分析하여 有用하게 活用」하는데 있다. 곧 情報處理能力 여하가 그 사람, 그 集團, 그 國家의 運命을 左右한다.

日本의 三井物産은 날마다 世界의 情報를 20萬件이나 蒐集하는데, 世界 곳곳에 自國人 情報員 3,000名과 外國人 願備情報員 1,000名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고 있다. 日本이 經濟大國으로 떠오른 것은 이

렇게 피나는 努力의 結晶인 것이다.

우리도 서둘러 優秀한 英才教育에 總力을 기우려야 겠다. 그러자면 英무새식의 注入式, 記憶爲主의 教育에서 생각하고 創造하는 教育이 되어야 할 것이다.

바람직한 教育은 「未來는 이렇게 될 것이다」의 기다리는 待望教育이 아니라, 「未來는 이렇게 만들 것이다」의 다져가는 對備教育이어야 한다. 敗戰日本은 半世紀도 되기전에 世界的인 經濟大國이 됐다. 그 原因은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의 하나는 讀書運動이다. 그래서 世界第一의 讀書國民이 됐다. 日本서 가장 잘되는 장사는 책장사라고 한다. 男女老少 누구나, 어디서나, 언제나 책읽는 모습은 참으로 부럽기 그지없다.

經濟企劃院 發表 85年 「韓國의 社會指標」에 國民의 40%가 책한 卷도 안 읽는다고 하니 이래서야 日本과 競爭이 되겠는가! 讀書力=國力이란 公式은 하나의 眞理다. 이제 우리는 父母부터, 스승부터, 윗사람부터 손에 책들고 다니기의 模範을 보이자.

讀書는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, 손으로 하는 것임을 銘心하자.

現代는 科學時代다. 이 時代를 슬기롭게 살아가려면 科學書籍을 많이 읽어야 한다. 家庭圖書나 學級文庫는 물론 圖書館까지도 科學圖書를 51%이상 갖추기로 하자. 科學的인 雰圍氣造成의 第一條는

科學圖書를 갖추기부터 해야 한다.

美國의 벨이 電話機를 發明하게 된 것은 이탈리아人的 불타電池發明 이야기와, 프랑스人的 알페르法則 發見 이야기에, 도이치人的 오음法則 發見 이야기를 읽고, 이 세 가지를 더해서 이루어진 것이다. 創造는 過去의 밀거름에서 자라는 것이며, 그 밀거름은 冊속에 쌓여 있다.

讀書를 習慣化하자!

科學書籍을 많이 읽자!

發明은 한 발 앞지르기의 競爭이다. 아니 차라리 戰爭이라고 해야겠다. 秩序는 한 발 뒤서기다. 한 발씩만 사양하면 秩序는 이루어지며 나아가서 平和가 온다.

우리는 國際技能올림픽에서 6連覇의 偉業을 達成했다. 손재주는 世界에선 他的 追從을 不許한다. 그러나 손재주만으론 國際競爭을 이길 수 없다. 經濟大國은 꿈도 꿀 수 없다. 技術發展을 이루어야 經濟大國이 될 수 있는 것이다. 頭腦開發을 통한 技術開發이 따라야만 經濟大國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

1985년 世界의 特許出願은 약 100萬件인데, 놀라게도 日本 한나라가 48萬件을 出願했고 이듬해엔 72萬件이었다. 우리는 부러워할 것만이 아니라 어서 他山之石으로 삼자. 바람직한 教育은 얼마나 많이 가르치느냐의 量의 問題가 아니라, 어떻게 가르치느냐의 質의 問題임을 銘心하자. <계속>

## 新 刊 案 內

### 발명으로 성공한 사람들

부록: 누구나 발명인이 될 수 있다

—발명의 발상기법 중심—

가 격: 3,000원

판매처: 韓國發明特許協會 資料販賣센터